상당법어(上堂法語)는 스님들의 깨달은 말씀이다. 이 땅에 살아있는 옛 조사들의 어록들은 돌덩이처럼 박혀 누리를 굴 때도 있고, 오색영롱한 사리처럼 살아 대천세계를 밝은 빛으로 비추기도 한다.

사제지간인 성우스님(대구 파계사 주지)과 김규대법사 유명한 율사(조계종 계단위원)이면서도 치열한 선사의 면목을 지닌, 또 아름다운 시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시인의 명성을 갖춘 성우 스님의 이번 저술도 '계와 선은 둘이 아니다(戒禪不二)'라는 평소의 소신을 보여준다. 성우스님은 "계와 선을 구별하고 서로 무시하는 것은 수행이 부족한 사람들의 단견"이라며 "수행이 바탕에 쌓이면 선과 계와 교육이 저절로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공동저자인 김규대법사는 "세상을 밝히는 선지식들의 눈밝은 지혜와 탕탕한 모습이 본성을 잃고 허우적거리는 오늘날 중생들에게 무명의 어둠을 몰아내는 청량한 충격이 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책에 상당법어가 수록된 생존 고승은 월하 서옹 혜암 월산 성수 서암 법룡 청하 지유 화엄 진제 영파스님등 12명이다. 〈경〉

274명 역대조사·고승 선어록

'상당법어' 집대성

성우스님·김규대법사 공동작업

◇성우스님

◇김규대법사

(육군 군종감실·중령)가 274명의 방대한 조사·고승들의 선어록을 집대성한 〈상당법어〉(전 2권·토방 刊)를 파내 화제가 되고 있다.

특정한 인물이나 국적·종파를 염두에 두지 않고 법맥과 생멸연대순으로 고승들의 법어를 대부분 망라한 이 책은 우리나라 근·현대 고승과 생존 고승들의 상당법어까지 함께 수록해 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한다. 특히 〈전등록〉〈선문염송〉〈조당집〉 등 대표적인 선어록과 각종 법어집을 참고해 가장 방대한 선어록을 엮은 점과 빠짐없이 인용문의 전거를 밝힌 점 등이 자료적인 가치를 더하고 있다.

국적·종파초월 총망라

생존고승 12명도 포함

성우스님은 "선종인 조계종이 선종어록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족보를 잃어버리는 일과 같다"며 "이번 작업이 선종의 맥을 짚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발간 동기를 밝혔다.

■ 민족사 '한국근대불교사연구' '… 불교자료전집' 출간

"일제하 불교사 총정리"

미개척 분야 반세기만에 조명

◇김광식씨

불교사연구 **총본산건설운동 조계종 성립등 조명**

불교자료집 **잡지등 근·현대 불교자료 70권으로**

그간 미개척 연구분야로 남아있던 한국 근·현대 불교사가 광복 후 반세기만에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민족사(대표 윤창화)는 광복 51주년을 맞아 〈한국근대불교사연구〉를 출간함과 동시에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전 70권·관련기사 6면)을 곧 발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료부재와 무관심, 연구 부족 등으로 한국불교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근·현대 불교사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김광식 책임연구원이 쓴 〈한국근대불교사연구〉는 일제강점기 불교사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나온 최초의 본격적인 단행본 연구서라 점에서 근대 불교사 연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룰 전망이다. 또 1800년대 말부터 1960년대까지의 한국불교사 관련자료를 담는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은 그간 알려지지 않은 방대한 잡지 신문류 도서류 문건류 등의 자료를 해제와 곁들여 편집·영인함으로써 근·현대 불교사 연구에 가장 충실한 1차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대불교사연구〉는 1910년대부터 1945년 광복까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불교계의 현실 인식'에서는 1910년대 불교계의 친화론 수용과 사찰령, 조동종 맹약과 임제종 운동, 일제하 선학원의 운영과 성격을 서술했다. 제2부 '불교청년운동'에서는 이영재의 생애와 〈조선불교혁신론〉, 조선불교청년회의 역사적 고찰, 조선불교청년총동맹과 만당을 담았다. 제3부 '불교계 통일운동'에서는 조선불교선교양종 승려대회의 개최와 성격, 1930년대 불교계의 종헌 실행 문제, 일제하 불교계의 총본산 건설운동과 조계종 성립 등에 대해 기술했다. 이밖에 부록으로 5백여명 이상의 인물을 수록한 '한국 근대불교인물행적 기초조사록'도 참고자료가 될 만하다.

내달 출간예정인 〈근현대불교자료전집〉은 〈조선불교〉〈일광〉〈평범〉〈녹원〉〈홍법우〉 등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불교잡지 10여종을 포함, 모두 20여종의 불교잡지를 수록하고 있으며 '조선불교선종 종헌' '조선불교 중앙교무원 회의록' '조선불교 교헌' '조선불교대회 기요' 등의 각종 회의록 및 자료집을 두루 담고 있다. 또 '한국불교 정화의 투쟁경위서' 등 정화관련 자료도 있어 비구-대처 분규사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집은 김광식 책임연구원과 동국대 경주캠퍼스도서관 이철교 열람과장의 공동노력으로 빛을 보게 됐다.

이같은 2종의 근·현대 불교사 관련 역작을 낸 김광식씨는 "자기의 역사를 정면으로 대하려는 건강한 역사의식이 없이는 미래의 희망은 담보할 수 없다"면서 "불교종단들이 종단 및 한국불교사의 재정립 차원에서 근·현대 불교사 정리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명사추천 불서 100선

지욱대사 '주역선해'

내가 지욱(智旭)의 〈주역선해(周易禪解)〉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언제쯤이었을까? 대학 3학년때, 서당에 다니며 〈주역(周易)〉을 배운 이후로 〈주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는 항상 내 머리 속을 떠나지 않는 숙제였다. 이러한 숙제를 풀려고 대학원 시절에는 '다산 정약용의 주역해석'으로 석사논문을 쓰기도 하였다. 아마 내가 지욱대사의 〈주역선해〉를 접하게 된 것도 그 시절 전후였던 것 같다.

〈주역〉하면 으레히 유가의 경전이요, 문왕(文王)과 주공(周公)의 역(易)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상식인데, 도대체 선해(禪解)란 무엇이란 말인가 하고, 제목에서부터 상당한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이 책을 실제로 발견하게 된 것은 명동의 어느 중국서점에서였는데, 소문으로 듣던 책이 바로 이 책이로구나 싶어, 기쁜 마음으로 얼른 구입했던 생각이 난다.

그후 탄허스님에 의해 〈주역선해〉(교림출판사, 1982)가 번역되어 다시 한 번 읽게 되고 점점 이 책은 나에게 더욱 친숙한 책이 되었다. 탄허스님의 번역은 현대적 문체로 번역되어 있지 않아서 쉽게 읽어 내려가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현토주해(懸吐註解)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이라는 장점이 있다. 쉬운 우리말 번역은 아니지만, 인내를 갖고 읽으면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주역선해〉의 저자인 지욱선사(1599~1655)는 호(號)가 팔불도인(八不道人)이며, 자(字)는 우익(藕益)이다. 그가 살던 명말청초 시대는 명대 이래 발전되어온 유불도 삼교(儒佛道 三敎)의 융합이라는 독특한 시대정신에 둘러싸여 있었다. 지욱은 처음에는 유가였으나, 12살때 유가경전을 배우면서 육상산과 왕양명의 심즉리설(心卽理說)에 도취하게 되면서 노장(老莊)과 불교를 배척하면서, 불교를 배척하는 〈벽불론(闢佛論)〉 수십편을 짓게 된다. 그러나 그는 운서(雲棲) 주광의 〈죽창수필(竹窓隨筆)〉 등의 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고 그가 스스로 지은 〈벽불론〉을 불태우고 만다. 마침내는 감산 덕청의 문인인 설령(雪嶺)을 찾아가 출가하게 된다. 이처럼 유불회통적(儒佛會通的)이었던 시대에 살았던 지욱은 그의 삶 자체가 유불교섭적 인생이었다. 〈주역선해〉는 지욱의 이러한 유불융화적 사고의 산물이다. 나는 〈주역선해〉의 독특한 가치가 지욱의 개인적인 체험과 시대정신을 융합해서 이루어낸 고유한 세계관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세계에 유가의 세계가 따로 있고, 불교의 세계가 따로 있을 리 없다.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세계 뿐이며, 거기에는 어떠한 이름도 소속도 없는 것이다. 지욱의 〈주역선해〉는 이처럼 동강나지 않은 세계를 통채로 꿰뚫어 보여주고 있는데 그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요즘처럼 이데올로기의 차이나 종교의 차이 때문에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지욱 같은 관용적이고 회통적인 사상가가 그리워진다.

방 인
(경북대 철학과 교수)

유불회통사상 토대 주역 해석

역학의 이치등 꿰뚫어 보여줘

▲분별은 바치고 마음은 밝은 곳으로(금강경독송회 엮음)=스테디 불서인 〈그 마음을 바쳐라〉의 저자 김재웅법사와 함께 수행하는 금강경독송회 회원들이 수행담을 모아 엮었다. 금강경독송회는 내무부장관·동국대 총장을 지낸 故 백성욱박사가 1931년 금강산 지장암에서 수도하며 제자를 양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단체. 〈용화 6천원〉

▲49재 공덕과 의미(편집부 엮음)="죽은 이의 영가(靈魂)는 49재를 통해 불법을 듣고 깨우쳐 업장을 소멸하고 극락왕생 한다." 49재와 영가 천도에 대해 바르게 알고 정성을 다해 동참할 수 있도록 49재의 참뜻과 공덕을 쉽게 풀이했다. 또 생생한 영험 사례도 실었다. 〈이바지 3천원〉

▲바가바드 기타(함석헌 주석)=쿠르크셰트라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무대로 한 〈바가바드 기타〉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모순을 나타낸 인간내면의 전쟁을 표현한 힌두교 성전. 인도의 모든 지역, 모든 계층이 공유하며 다양한 인도를 하나로 묶는 공통분모의 역할을 하고 있다. 뜻 위주로 번역. 〈한길사 2만원〉

▲우리 민속현장 답사기(민속학회 저)=우리 삶의 심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온 것은 험한 세상을 살아 온 조상들의 삶의 방식과 풍류가 있는 여유로움이었다. 민속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우리 문화유산 가운데 각 시기를 대표하는 유·무형의 민속문화들을 가려뽑아 답사했다. 〈태일 6천5백원〉

▲돈키호테 소방관(윤수천 글·초민주 그림)=우리의 전통사상인 효,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 도깨비와 어린이들과의 우정, 그리고 교육 통일 환경 등 여러가지 주제를 창작동화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고려원미디어 4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우 학	좋은인연
2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법 정	샘 터
3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4	기도	일 타	효 림
5	마음을 숙이면 인생이 즐겁다	편 집 부	정 토
6	한국사찰의 주련	권 영 한	전원문화사
7	영원한 대자유인	강 정 진	경 서 원
8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9	전생여행	김 영 우	정신세계사
10	참선교육	현 담	수 선

구입문의:(02)737-0695

출판 소식

학림스님 '생활불교시리즈' 펴내

학림스님(예천 법화암 주지)은 '쉽고 재미있는 생활불교' 시리즈로 〈석가모니불 500대원〉 〈지장경〉 〈장수멸죄경〉(운주사 刊) 3권을 동시에 출간했다.

생활불교 시리즈는 누구나 쉽게 불교를 이해하고 생활화하도록 경전을 학술적인 분석보다 실천에 중점을 두고 쉬운 한글로 옮겼다. 또 관련 사진을 곁들여 이해를 돕고 법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석가모니불…〉은 〈비화경(悲華經)〉을 통해 현겁 사바세계 오탁악세에서 성불하신 부처님의 500가지 서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장경〉은 〈삼세 인과경〉이라 할만큼 삶을 심도있게 다루며 '뿌린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를 강조한다. 〈장수멸죄경〉은 장수 행복뿐만 아니라 낙태 인과, 영가천도 등 인간의 평생 건강법을 담고 있다.

'자원봉사란 무엇인가' 번역출간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 산하 출판사인 도서출판 어진벗이 '자원봉사 총서' 제1권으로 〈자원봉사란 무엇인가〉를 펴냈다. 지난해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중등교육에까지 도입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책은 자원봉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봉사활동 사례 30가지를 담고 있다.

일본청년봉사협회가 엮고 김영민씨가 번역한 이 책은 자원봉사란 자기 자신의 사회체험 학습이고 각 분야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배움의 장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다. 어진벗은 〈자원봉사 어떻게 할 것인가〉 〈자원봉사 활동의 실제〉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 등을 계속 발간할 예정이다. (02)723-6258

김재웅 법사와 함께하는 금강경독송회! 이들의 현대적 수행담

분별을 바치고 마음은 밝은 곳으로

1부 : 금강경독송회 평신도님들의
신앙체험담
생활속에서 바치느 법을 실행하며 밝은
생활을 누리시는 따스한 이야기가
봄햇살처럼 가득합니다
2부 :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
지극한 부처님 시봉과 불같은 정진에 몰두
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는 푸른 공기
처럼 우리의 가슴을 적셔 줍니다.

금강경독송회 엮음

김재웅 법사의 세번째 책

그 마음을 바쳐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지혜를 가로막는 일이니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버리라고 하면 아까울 것이니
그 마음을 바쳐라.
바치는 마음을 연습해서 남을 위해 살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마음이 우주에 가득차서 결국 부처님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 어디에 네가 있고 또 내가 있는가?
너, 나 없는 그냥 한마음 아닌가.
〈 백 선생님 법문에 〉

신국판 267쪽/ 값 7,500원

도서출판 용화/ 경북 영일군 흥해읍 성곡2동 1269/전화 (0562)61-2231/ 서울 연락처(02)742-0172
판매보급처/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 720-9372,9373/ 팩스 (02) 723-0646
금강경독송회/ 서울 해화법당(02)742-0172/ 포항 우현동 법당 (0562)47-0323/ 포항 금강정사(0562)61-2231

현대불교신서5

반야심경 해설서의 새로운 地平
현대인을 위한

반야의 가르침

송지호 글 / 신국판 / 420쪽 / 6,000원

친근하면서도 어려운 반야심경,
260字가 품고 있는 비의를
현대인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만나 보십시오.
한 소식 들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전해석을 축으로 하고 풍부한
예화(例話)와 적절한 인용을 곁들여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엮은
반야심경 해설서.

저자 송지호씨는
군산수산대학 교수로 지내셨고
현재는 금당사 법사로
포교활동에 전념하시면서
경전을 쉽게 해석하여 널리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계신다.

불서전문출판
대흥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8(수성B/D 101호)
TEL 738-6270, 735-7202 FAX 733-1016

현대불교신서
1. 문수사리소설 마하반야바라밀경
2. 대장부론
3. 법화경 강설
4. 육묘법문
5. 반야의 가르침
6. 반야경(가제) 〈근간〉